

관광도시 남원의 힘찬 비상

관광형 모노레일 민간개발 투자협약

남원시가 관광도시 남원의 힘찬 비상을 위해 지역 대표관광지인 관한루원과 남원관광지간 연계를 통한 체험형 관광 기반시설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간개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에는 이환주 남원시장, (주)삼안 최동식 대표이사, (주)EMTC 서광모 대표이사, (주)셀린지코리아 이원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주)삼안과 이엠티씨(주), 셀린지코리아는

2021년까지 순수 민간자본 316억원을 투입, 우선 남원관광지 내 춘향테마파크와 함파우소리체험관, 김병중 시립미술관을 연결하는 2.16km 구간을 관광형 모노레일 8인승 15대를 설치하고, 남원항공우주전문대 주변에 남원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높이 70m의 짙타워를 설치하며, 현재 공사 중인 남원예촌 마당으로 도착하는 800m의 1코스와 함파우 소리체험관으로 도착하는 430m의 2코스의 짙타워가 추진된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남원관광의 오랜 숙제였던 관한루원과 남원관광지간 관광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져 남원시가 보고, 느끼는 체험형 관광지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이번 관한루원과 남원관광지를 연결하는 모노레일 및 짙타워 설치하는 대표 관광도시 남원이 체류형 관광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쟁력있는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인재채용, 지역생산품구매, 지역기업 이용을 당부하며, 성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가 체험형 관광 기반시설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간개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 위치도.

남원시, 민선7기 공약사업 보고회 가져

교육복지·도시환경 등 5대 분야 34개 사업 점검

남원시는 지난 5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체계적 관리와 원활한 이행을 다짐했다.

보고회에는 부시장, 국장, 공약사업 소관 20개 부서장이 참석해 ▲품격 있게 육성하는 문화관광 ▲좋은 기업과 일자리 역동하는 지역경제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교육복지 ▲

스마트 농업 품요로운 농촌 ▲친절한 소통행정 편리한 도시환경 등 5대 분야 34개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에서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 치매안심센터 설립 운영,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 등 8개 사업은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분류했으며,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도입, 기업하기 좋은 남원 일반산업단지조성,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조기개교 등 26개 사업은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별 당면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해 효과적인 대안 모색과 함께 공약사업의 이행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환주 시장은 "공약사업은 남원의 행복한 미래를 실현할 핵심일 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해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지난 5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모래시계 거꾸로 식사법' 큰 호응

순창건강장수사업소, 건강한 100세 음식 먹는 방법 개발

순창건강장수사업소에서 개발한 '모래시계 거꾸로 식사법'이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식사 방법으로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모래시계 거꾸로 식사법은 풍족해진 경제생활로 인해 생활습관병과 각종 성인병 환자가 늘어나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대안으로 개발한 음식을 먹는 방법이다.

당뇨나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생활과 식습관 개선이 중요한 만큼 이번 순창건강장수사업소에서 식습관 개선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식사법을 개발하고 나선 것.

모래시계 거꾸로 식사법은 음식을 먹는 순서를 가장 중요시한다.

처음에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해조류 등을 먹고 단백질이 함유된 육류와 계란, 생선 등을 먹은 후 주식인 밥을 제일 마지막에 먹는 것으로, 기존에 식사를 하던 방식을 거꾸로 전환한 것이다. 먹는 양은 배부르다 느끼는 정도에서 80% 정도면 적당하다.

이 같은 방법은 음식의 소화와

영양분의 흡수가 천천히 진행되어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인슐린이 완만하게 분비되어 당질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흔히 식사 후 바로 물과 커피를 마시는데, 이는 소화를 방해하는 습관이며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다. 식사 30분 이전에 물 한 컵을 마시고 식사 후 1시간 이내에는 물을 먹지 않은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또한 음식을 20분 이상 자근자근 씹고 식사시간은 30분 이상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 사업소에서는 식단에 모래시계(30분용)를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노후준비교육 등에 참여한 교육생들에게 '음식 먹는 방법'을 철저히 적용하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관내 각 기관과 단체, 복지시설 등 단체급식이 제공되는 곳에도 건강한 식습관을 정착하고 바른먹거리를 통해 정착시키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PLS 제도 본격 시행

순창군이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PLS) 전면 시행에 따라 순창군 농산물의 안전성과 농약 안전관리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

PLS는 국내 또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용했을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0.01mg/kg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군은 PLS 제도 본격 시행으로 농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3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252개 마을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현재까지 715건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남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정보격차 정책연구회(이미션, 김영태, 손중열 의원)는 지난 5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읍면 직원들과 정보격차 정책연구를 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했다.

연구회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남원시 정보격차 실태와 현황정보를 살피고, 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 과제와 방안을 고민하며 향후 정책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우리사회는 스마트 환경으로 진화하면서 도시와 농촌간 정보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연구회 대표인 이미션 의원은 "내실있는 연구활동을 통해 남원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영상제작 꿈 있는 청소년 지원

7월부터 여균동 감독 초청 영화 아카데미 운영

순창군이 한국을 대표하는 여균동 감독을 초청해 영화제작에 관심 있는 청소년의 꿈을 적극 지원한다.

군은 최근 미디어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고자 우수유망층에 여균동 감독을 초청, 순창 단지영상법인(대표 김준)과 함께 오는 7~8월에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영화만들자'란 주제로 영상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여 균동은 지난 4월 세상과 편견을 향한 시원한 풍자가 돋보이는 영화 '예수보다 낫선'을 개봉하며 여전히 영화에 대한 식지 않은 열정을 보이고 있어, 영화제작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뜻 깊은 시간이 될 전망이다.

군은 총 10회에 걸쳐 운영될 영상아카데미 참여 학생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자는 관내 고등학생 1~3학년으로, 온라인(www.wooyoungza.com)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1차 서류 심사와 오는 15일 면접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18일에

발표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될 20명내외의 청소년들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순창 중앙초등학교내 영재교육원 2층에서 영상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 한국을 대표하는 여균동 감독을 비롯, 재창규 촬영감독, 박종환 조감독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며, 전문성을 높여 영화제작에 꿈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전북도와 공동으로 주민시네마스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영상제작에 관심 있는 군민들을 교육했다.

이 과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이번 아카데미에 참여해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봉황인재학당 입학생 선발

임실봉황인재학당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2019학년도 하반기 봉황인재학당 입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대상은 관내 중학생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총 150명을 선발하며, 지원자격은 접수일 기준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7월 10일까지 관내 중학교로 전학 예정인 학생으로,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입학생은 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으로 22일에 봉황인재학당에서 치러지며, 7월 5일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봉황인재학당 입학생 선발 공고 및 응시원서는 임실군 홈페이지 임실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실=진종영 기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대표 이영근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